

영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과 MOU

## 유한양행, 유럽진출 토대마련

연구 가속화 위한 'ICiC' 프로그램  
초기 신약개발 과제 공동연구 진행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시너지 기대

유한양행이 113년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ICiC'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ICiC 프로그램은 기초연구 단계에서 산업화 연구단계를 연계하는 중개 연구의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해, 영국 정부·기관과 사업체가 보조금을 매칭하여 새로운 치료법, 의료기기 및 진단 분야의 개발을 지원 및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8년째 진행 중이며, 이미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다.

유한양행은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임페리얼 컬리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초기 신약개발 과제들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페리얼 컬리지는 세계적으로 의학 및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영국 대학으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



의을 실현하는 중개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암, 면역·감염, 섬유증, 뇌·인지연구 부분의 기초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이 있다.

특히, 임페리얼 컬리지는 유망 벤처·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산업화를 촉진, 지원하는 중개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임페리얼 컬리지의 혁신적인 기초과학 연구 성과에 유한양행의 신약개발 노하우가 더해져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본 협력은 유한양행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WEHI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 비영리 해외 연구기관인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와의 공동연구 진행으로 새로운 혁신신약 개발 및 파이프라인 강화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의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일동제약 韓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A등급

일동제약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기업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평가에서 A등급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ESG 평가 및 등급 공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별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대상기업들의 각종 지표 및 활동 내역 등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등 7등급으로 분류해 공표하고 있다.

올해 통합등급에서 일동제약은 평가 대상인 전체 760개 기업 중에서 92개



일동제약

기업이 포함된 A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동종업계 기업 중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지주사인 일동홀딩스는 B+등급을 받아 대상 기업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측은 특히, 세부 평가 항목 중 사회(S) 분야에서 각각 A+등급과 A등급을 획득해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관련한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 한미약품, 제약기업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국제표준 'ISO26000' 기반 측정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우수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표준협회는 16일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를 발표하고, 한미약품을 제약기업 부문 1위, 종합 부문 6위 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속가능성지수(KSI)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소비자, 환경, 미래가치 등 80여개 중요 항목에서 동종업계 내 상대적 평가와 함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영활동의 개선 및 관리를 평가하는

지표다.

학계,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에서 선발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제약, 철강, 상사 등 47개 업종 201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개월 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은 59.65점으로, 제약업계 최고점과 종합 부문 6위를 받았다. 제약업계 지수 평균은 56.05, 종합 부문 평균은 52.99 점이었다.

한미약품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협력사와의 상생, 고객만족,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정부, '데이터 댐'에 5000억 투자

## '데이터 오토라벨링' 기술 급부상

딥러닝기술로 배경과 오브젝트 구분  
자동화로 작업속도 최대 10배 향상  
미학습 오브젝트도 선처리 가능해져